여수가 큰 일 났다

‘오현섭 비리’ 지방의원 11명 의원직 상실 우려
광주고법, 1심 무죄 4명은 유죄, 7명 항소기각

시의회 파행 불보듯… 박람회 부정적 영향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비리에 연루된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지방의회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창한)7일 뇌물수수 또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수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15명과 오 전 시장의 선거운동원 등 2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여수시 의회 고효주·강진원·이성수·황치종·정병관·이기동·김덕수 등 7명의 의원과 전남도 의회 성해석·최철훈·정빈근·서현곤 등 도의원 4명 등 11명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방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며, 선거범죄 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특정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 같은 무더기 의원직 상실형 선고는 초유의 일이다. 여수시의회 이기동·정병관·이성수·황치종 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정빈근·성해석 의원 등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7명은 항소가 기각되거나 형량이 늘었다.

또 여수시의회 김덕수·강진원·고효주 의원과 전남도의회 최철훈 의원 등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재적의원 26명인 여수시의회는 7명이 의원직을 잃으면 의정 파행은 물론 다시 선거를 치러야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무더기 의원직 상실이 현실화할 경우 여수에 대한 지역 이미지 추락에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 지망생들은 대규모 의원직 상실 사태를 정계 진출을 위한 호기로 판단, 선거운동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는 등 지역 정가가 뒤숭숭하다.

지역민들은 “여수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치욕”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지역 16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여수지역 정치개혁 연대’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공식 입장을 정리,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지방의원들은 오 전 시장 측으로부터 시정에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오현섭 前 여수시장 비리 연루 시·도의원 재판결과

구분	대상자	죄명	1심(2월 24일)	2심(7월 7일)
전남도의원	서현곤	뇌물수수	징역 6월, 집유 2년, 몰수 1만원권 500장	징역 6월, 집유 2년, 몰수 1만원권 500장
	성해석	공직선거법	벌금 150만원, 추징 500만원	벌금 150만원, 추징 500만원
	정빈근	뇌물수수	징역 6월, 집유 2년, 추징 500만원	징역 6월, 집유 2년, 추징 500만원
	최철훈	뇌물수수	무죄	징역 6월, 집유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 500만원
여수시의원	이기동	뇌물수수	벌금 200만원, 추징 500만원	징역 6월, 집유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 500만원
	정병관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징역 8월, 집유 2년, 추징 1000만원	징역 6월, 집유 2년, 벌금 200만원, 추징 1000만원, 벌금 1000만원
	이성수	공직선거법	벌금 150만원, 추징 500만원	벌금 150만원, 추징 500만원
	황치종	공직선거법	벌금 150만원, 추징 500만원	벌금 150만원, 추징 500만원
	김덕수	뇌물수수	무죄	징역 6월, 집유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 500만원
	고효주	공직선거법	무죄	벌금 150만원, 추징 500만원
	강진원	공직선거법	무죄	벌금 150만원, 추징 500만원

나주시청 간부들 공직감찰기간 고스톱

복무기강 총괄 담당 국장 포함 5명 입건

최근 공직자들의 잇따른 비위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지적된 가운데 나주시청 간부들이 화투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은 7일 수십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나주시청 이모(59·4급) 국장과 김모(58·5급) 과장 등 4~6급 공무원 5명을 도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국장 등은 전날인 6일 밤 11시부터 7일 새벽 2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나주의 한 식당에서 판돈 41만원을 걸고 점당 300원짜리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에는 나주시에서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총괄하거나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과장은 “계 모임이 끝나고 술을 깨고 가자고 해 잠시 했을 뿐”이라면서 “어찌 됐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전남도가 최근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선 시점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최근 감찰반을 편성, 공직자들의 이권 개입이나 금품 수수, 부당 민원처리 등을 단속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작 심사

7일 오후 광주시 남구 빛고을도예촌에서 열린 ‘제14회 광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한국관광공사, 호남대학교와 서영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교수들이 출품작들을 심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학 건물 방화범 붙잡아

순천경찰은 7일 대학 건물에 불을 지른 한모(31)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새벽 3시10분께 순천시 매곡동 순천대 학생회관 2층 현수막 제작실과 3층 동아리방에 이어, 50분 뒤 학생회관과 약 30m 떨어진 사범대학 1층 모 학과 학생회실 등 3곳에 잇따라 들어가 종이와 책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영광 묻지마 폭행범 검거

지난달 영광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발생한 ‘묻지마 폭행’사건〈광주일보 6월 13일 6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0대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광경찰은 7일 고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잇따라 때린 김모(31)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주전급 선수도 프로축구 승부조작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등 54명 또 적발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에서 국가대표급과 각 구단의 주전급, 신인선수들이 대거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관련기사 17면〉

이들은 인맥관계를 앞세워 접근한 K-리그 선수출신 브로커들에게 포섭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승부조작에 뛰어들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7일 스포츠토토 고액베팅을 노린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 사기)로 54명을 적발해 현직 K-리그 소속 선수 37명, 선수출신 브로커와 전주 11명을 기소하고 행방을 감춘 브로커 6명은 기소중지했다.

이 가운데 15명은 구속기소,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등 30명은 불구속기소, 3명은 약식기소했다. 또 군검찰이 상주상무 소속 선수 3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해 승부조작으로 적발된 선수와 브로커는 모두 63명에 이른다.

가담선수들은 브로커들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고 경기를 고의로 져줬다.

선수섭외 등 승부조작 기여도에 따라 브로커들로부터 1명당 1경기에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500만원씩을 경기직전에 받았다.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불구속 기소)은 광주상무에서 뛸 때 2차례 승부조작 경기에 가담해 1경기에서 4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군검찰에 구속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팀동료 김동현과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아이파크 이모(29·구속 기소) 선수는 전남 소속 당시 1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5500만원을 받았다.

올림픽 대표팀의 주장 홍정호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돈까지 받았으나 즉시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속구단인 제주유나이티드 구단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졌는지 규명되지 않아 이번에 기소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교장이 납품 사례비 요구해 놓고 강매라니…”

“교장실로 바로 오라 집 주소 인쇄된 명함건네” 교구 납품업자 주장

“교장이 은근히 납품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해 150만원 상당의 가구를 제공했는데, 오히려 물건을 강매했다고 덮어씌우다니요?”

교구 납품업자인 이모씨는 최근 전남도교육청 민원실에 접수한 진정서에서 이같이 주장, 진상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진정내용에는 은근하고 고질적인 교육계의 상납비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화순 모초교 교장은 “교장실로 바로오되 행정실 등 학교 관계자와 물 한 잔이라도 마시면 끝이다”고 못박았다.

그는 “교장실에서 만난 이 A교장은 학교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다. 다른 업자는 리베이트로 15%를 준다더라. (당신은) 얼마를 주겠느냐, 우리집 가구도 와서 한번 봐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교장은 만남에서 특이하게도 주소가 인쇄된 자신의 명함을 이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이후 이씨는 A교장의 광주 아파트를 2차례 방문해 가구 카탈로그를 보여주고 직접 선택하도록 한 뒤 지난 6월17일 식탁·의자·화장대 거울 등 모두 7점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갖다줬다.

흔쾌히 물건을 받았던 A교장은 열흘뒤인 지난달 27일 이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물건을 나에게 강매했다. 가구를 가져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받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씨는 “이미 학교에 350만원 상당의 교장실 의자와 교무실 집기 등을 납품한 상황에서 추가 납품을 받기 위해 가구를 제공했다. 그러나 A교장이 물건을 강매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 교육청에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가구를 들여놓은 뒤 대금은 나중에 치르기로 업자와 상의했다. 주문하지도 않은 식탁을 가져온데다 일부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했다”며 “내가 학교 물품 구매예산과 리베이트를 언급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재직한 학교와 거래한 업자들을 조사해보면 내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버스 재생타이어 ‘펑’ 광주서 시민 2명 다쳐

달리던 버스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경신여고 인근 도로를 달리던 51번 저상버스의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가 터졌다. 이 사고로 버스 유리창이 깨지면서 승객 20여명 가운데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버스가 승강장에 멈추려고 속도를 늦춘 상황이어서 큰 피해는 없었다.

이 버스는 타이어 폭발사고가 난 다른 버스처럼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 타이어는 압력에 견디는 힘이 약해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펑크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버스 업체 측은 재생 타이어가 측면 등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고는 자체적으로 터진 것이 아니라 바퀴가 보도에 심하게 긁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네가 뭔데…” 면박에 흉기 휘둘러

쌍나팔

○…광주동부경찰은 7일 평소 좋아하던 여성이 자신에게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조모(49)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새벽 0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소태동 A(여·51)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가슴과 오른쪽 어깨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혐의이며 A씨는 긴급수술로 위기를 모면.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해 12월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처음 만나 평소 A씨의 집을 드나들며 애정공세를 펼쳤는데, 이날도 몰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귀가한 A씨가 “네가 뭔데 우리집에서 자냐”며 면박을 주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적분과정 / 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大 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전남본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8월 1일